

2561  
2017

12

마 중 물  
인 희 생 을  
생 바 끊 는  
명 주 한  
을 다 마  
마 다,



향 유  
무 엇 일 을 이 미 지  
하 리 비 난 나 간  
하 간 여



결 망 에 담 긴 이 앙 기  
시 작 해 야 한 다  
버 리 고 다 시  
이 전에 얻 은 성 과 를

# 우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우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불교총지종

## 공사 公私

공중의 일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고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지 말며,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덕을 베풀고  
자기의 이익은 취하지 말라.



# 우드 다크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 불교총지종 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므로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 계율이야기 \_ 14

비구니가 되어  
혼자 다니지 말라  
— 법경

## 디딤돌 \_ 50

12월  
— 지현

## 지혜의 뜨락 \_ 58

동지팥죽과 나한전  
— 보현

## 04 불교이야기

- 10 마중물
- 14 계율이야기
- 20 살다보면
- 24 향유
- 26 십선성취
- 29 산책
- 30 마음의 등불
- 34 씨앗 한알
- 38 울림
- 42 발길 머무는 그곳에
- 46 법향기 속으로
- 50 디딤돌
- 52 차향기 속으로
- 54 거꾸로 보기
- 58 지혜의 뜨락
- 62 시선
- 66 SNS 세상 돌아보기
- 70 결망에 담긴 이야기
- 72 행복한 기지개
- 74 뜻 바루기
- 76 되짚어보기
- 78 만다라세상 컬러링

## 고성제 \_ 화령

희망을 주는 한마디, 인생을 바꾼다 \_ 혜민

비구니가 되어 혼자 다니지 말라 \_ 법경

나무 이야기 \_ 이옥경

이미 지나간 일을 비난하여 무엇하리 \_ 공자

마무리 \_ 덕현

석양이 보여주는 것 \_ 김대곤

세한 嘉寒의 푸르른 소나무 \_ 기대승

돈·직위·명예가 '나'를 대신할 수 없다 \_ 법륜

새벽에 귀를 기울여라 \_ 법정

불기운이 왕성한 화왕산을 오르다 \_ 강경종

잘 사는 방법 \_ 법수연

12월 \_ 지현

커피의 원산지 \_ 김성윤

미녀는 왕자로 변한 야수를 사랑했을까 \_ 박현희

동지팥죽과 나한전 \_ 보현

관심을 주세요! \_ 경문지

석호필(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_ 이선희

이전에 얻은 성과를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_ 법일

겨울철 짜릿찌릿한 손저림, 원인과 대처방안은? \_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

자자 自恣 \_ 김재동

광풍제월 光風霽月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 새로 시작하기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매 순간 항상 새롭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선한 감동과 생동감을 불어 놓아 주는지요.  
지나간 모든 것들을 뒤로한 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삶  
우리 삶은 늘 새로운 백지에  
새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 유시찬『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 화령

불교총지종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 주교



## 고성제란 무엇인가?

사성제 가운데의 첫 번째 진리는 고성제<sub>苦聖諦</sub>입니다. 고는 범어로 둑카<sub>duhkha</sub>라고 하는데, ‘심신에 가해지는 펉박’ 혹은 ‘심신을 괴롭히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에 대한 고성제가 왜 사성제의 첫 머리에 와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든 죽어서의 사후세계에서의 행복이든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재물이나 권력, 명예, 사랑의 획득, 건강 등과 같은 세속적 의미의 행복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절대적인 행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속적인 행복은 결국은 붕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상실했을 때의 고통은 더욱 큅니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절대적인 행복은 열반, 혹은 해탈이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음의 지혜에 의하여 이러한 세속적 행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세속적 행복은 참된 행복도 안락도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락인 열반의 길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의 참된 모습이 괴로움<sub>[고苦]</sub>의 연속이라고 보고 이러한 괴로움의 완전한 해결, 즉 영원의 행복과 절대의 안락을 최종의 목표로 삼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행복, 즉 해탈이나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에 대한 불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불교에서는 ‘고’라고 합니다. 즉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에 대한 확실

한 인식과 자각이 있는 다음에야 그것을 개선할 의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고라는 것이 없다면 열반이고 뭐고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삶은 불만투성이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언제나 고를 가장 앞에 내세워 그것에 대해 바르게 인식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사바-sah;娑婆 세계라고 하여 괴로움이 가득 찬 세계, 고통을 참아야 할 세계로 보고 있습니다. ‘고해 苦海’라는 말도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불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불교가 고를 강조하기 때문에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교의 합리적인 면을 보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에서처럼 자기가 받드는 신을 무조건 믿는 것에 의하여 세속적인 행복을 얻거나 사후세계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식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는 것에 의하여 현실의 고통을 잊고 세속적 욕망을 부추기는 종교는 술이나 마약처럼 자기 최면에 의하여 일시적인 통증을 해소해 줄 따름입니다.

여기에 반하여, 불교는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하여 그 개선을 꾀하고자 노력하는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종교입니다. 그것은 사후 세계를 기다릴 것도 없이 스스로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현실의 정확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통찰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고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저 신에게 의지하거나 행운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진면

목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괴로움이 닥쳐도 신이 자기를 시험한다고 치부해 버리면 속은 편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해서 잠시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끝없이 이러한 삶을 되풀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런 종류의 종교와는 차원을 달리 합니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이며 자각의 종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해 봅니다. 과연 이 세상은 즐거움만 가득한 곳인가?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 곳인가? 그리고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렇게 따져 들어가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저 마취제를 맞으면서 고통을 잠시 잊는 것처럼 신에게 매달려 현실을 잊으려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다 보니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은 자기 욕망의 충족에 불과할 뿐이고, 그 즐거움은 고통의 대가로 잠시 맛보는 것이거나 아니면 더 큰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고로써 점철된 것이 우리의 한 평생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다 보니 괴로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괴로움 그 자체의 성질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불교의 대명제로서 ‘고성제’를 가장 앞머리에 내세우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이것이 고를 전제로 한 불교의 현실인식이며 현실분석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실천상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출가동기

도 사문출유<sup>四門出遊</sup>의 전설로 상징되는 고의 인식과 그로부터의 해탈을 지향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문출유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 카필라국의 왕자였을 때 동서남북 각각의 성문을 나와서 늙고 병들고 죽은 자의 모습과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인생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수행자가 될 것을 결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따마 싯다르따 왕자의 출가를 두려워 한 부왕이 왕자의 눈에 인생의 괴로움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애썼지만 누구도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 왕자가 출가하여 마침내 큰 깨달음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사문출유라는 비유를 들어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의 출발점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에 있었기 때문에 괴로움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즉 ‘고성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



네 방향을 닦아 적의가 없이

무엇이나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온갖 위험을 극복하여 두려움 없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희망을 주는 한마디, 인생을 바꾼다

혜민

마음치유학교 교장  
뉴욕불광사 부주지



박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법화경』의 오백제자수기품<sup>五百弟子授記品</sup>을 다시 보게 되었다. 『법화경』은 개인적으로 참 인연이 많은 경전인데 보면 볼수록 그 깊이와 오묘함에 놀라는 경이다. 오백제자수기품은 부처님이 아라한 제자 500명에게 일정한 세월이 흐른 뒤 모두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sup>授記</sup>를 주시는 장면을 담은 것이다.

‘수기’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언제 어느 때 부처의 도를 이룬다 하는 일종의 예언 혹은 부처님의 보증을 말한다. 경전에는 수기를 받은 아라한 제자들이 기뻐서 펄쩍펄쩍 뛰어다녔다고 적고 있는데 이 대목을 읽으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다. 그때만 해도 나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특별히 공부를 잘하지도, 그렇다고 말썽을 부리지도 않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선생님이셨는데 나와 나이가 같은 아들 한 명을 두고 계셨다. 담임 선생님의 아들 또한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또 1학년 때 나와 같은 반을 지냈던 터라 담임선생님의 아들과 나는 꽤 친한 친구 사이였다.

그날따라 학교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걷고 있는 나를 담임선생님 아들이 보더니 자기네 집으로 가서 함께 놀자고 졸랐다. 그 친구와 같이 놀고는 싶었지만 혹시라도 그애 집에서 담임선생님을 만

날까 봐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데 그 애가 자기 엄마는 오후 4시 이전에는 절대로 집에 오지 않는다면 나를 설득했다.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오시는 오후 4시 이전까지만 논다는 계획 아래 그 친구네 집으로 갔다.

그러나 그 애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난감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오후 4시를 훌쩍 넘기고 말았는데 그때 갑자기 대문이 열리더니 담임선생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숙제와 예습, 복습은 하지 않고 친구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다는 꾸지람을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선생님을 보는 순간 나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나를 보시더니 아주 훈한 얼굴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참 동안 나를 안아주셨다. 그러더니 선생님은 그 친구가 착한 일을 할 때만 준다는 초코파이를 두 개나 꺼내 나에게 주시면서 “너는 앞으로 공부도 잘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며, 나중에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선생님은 믿는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에 그 어린 가슴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날 이후로 나는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로 다른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노력했다. 지금 내가 이곳에서 박사 과정까지 밟을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 때문인지도 모른다.

물론 부처님께선 선정 안에 드셔서 제자들이 미래에 불도를 성취하는 것을 보고 수기를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수

기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제자들이 불도를 이루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자들이 자신이 존경하는 스승님으로부터의 큰 기대와 격려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는 가운데 불도를 이루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다.

내가 알고 있는 노보살님 중에도 어느 큰스님과의 짧은 친견을 통해 들은 간단한 격려의 말씀과 가르침을 평생 삶의 목표로 삼고 정진하시는 분이 있다. 그렇다. 믿음과 희망을 주는 칭찬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충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다. ━

-『젊은 날의 깨달음』



# 비구니가 되어 혼자 다니지 말라

법경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소장  
법천사 주교



청정한 계율\_31

## 비구니 승잔죄의 독도촌숙계 獨渡村宿戒

비구니에게만 적용되는 승잔죄 가운데 독도촌수계 獨渡村宿戒가 있다. 비구니 혼자 물을 건너거나 마을에 들어가거나 홀로 잠을 자거나 뒤쳐져 혼자 다녀서는 안된다는 계율이다. 즉 여자 혼자 있거나 홀로 다니지 말라는 것이다. 겁탈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석존께서 이를 계율로 정한 것이다.

### 독도촌숙계 獨渡村宿戒의 인연담

혼자 있지 말라는 독도촌수계 獨渡村宿戒는 사독계 四獨戒라고도 불린다. 혼자 있어서는 안되는 네 가지를 말하고 있다. 즉 비구니가 혼자 촌락에 들어가거나 혼자서 강을 건너거나 혼자 밖에 나가서 자거나 혼자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사독계 四獨戒가 제정된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에 어떤 비구니가 홀로 옷을 높이 걷어 올리고 강물을 건너갔다. 그 비구니의 생김새가 단정하였으므로, 이를 지켜 본 도적이 염심 染心을 발동하여 건너편 언덕에 이르러서 갑자기 그 비구니를 겁탈하였다.

이를 목격한 거사들이 말하기를, “비구니가 부끄러움이 없이 옷을 걷어 올리고 물을 건너니 행색이 마치 음녀 雜女와 같다.”고 하면서 비방하였다. 이로 인하여 독도수계 獨渡水戒가 제정되었다.



또 차마라는 비구니가 용무가 있어서 홀로 친리촌이라는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를 본 거사들이 “비구니가 홀로 마을에 다니는 것은 수행을 하지 않고 남자를 구하기 위함이다.”하고 비난하니, 이로 인하여 독입촌계<sup>獨入村戒</sup>가 제정되었다.

그 후에 육군비구니와 투라난타 등 많은 비구니들이 코살라국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유독 투라난타가 육군비구니와 함께 멀리 뒤떨어져 오므로 앞서 가던 스님들이 말하였다.

“스님은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항상 뒤떨어져 다닙니까?”  
이 말에 투라난타와 육군비구니가 말하기를, “우리들의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비구니들이 꾸짖기를, “부처님께서는 항상 함께 다니라고 계를 제정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뒤쳐진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자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니 간섭하지 마십시오.”

다른 비구니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부처님께 이 일을 고하였다.  
이로 인해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였다.

“만약 비구니가 홀로 강을 건너가거나 마을에 혼자 들어가거나 대중들과 멀리 떨어져 혼자 다니면 이는 승잔죄이니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사음을 즐기며 바르지 않은 행을 하므로  
부처님께서는 혼자 강을 건너거나 혼자 마을에 출입하거나 떨어져 다니지 말라는 계를 제정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런 인연담이 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 선우 비구니가 근거 없는 일을 당하여 스스로 환속하고 결혼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병이 들어 다 죽게 되자 언니인 지우 비구니에게 집으로 한번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동생의 간청에 지우 비구니가 동생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동생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하룻밤을 지새우고 언니는 다음날 다시 절로 되돌아왔다.

그런데 절 안의 비구니 스님들이 “어젯밤 어디서 잤느냐?”하고 물자 지우 비구니가 사실대로 고백하자 이 말을 듣고 여러 비구들이 의심을 하였으니, 이에 부처님께서는 밖에 혼자 나가서 자지 말라는 독처숙계<sup>獨處宿戒</sup>를 제정하였다.

또, 어느 때에 여러 비구니들이 사위성에서 코살라국으로 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 어느 촌락에 이르러 투숙하게 되었는데, 그 중 한 비구니가 유독 미모가 뛰어났으므로, 한 남자가 그 비구니를 보고 홀로 염심을 일으켜 선심을 쓰고 미모의 비구니에게 별도로 방과 좋은 이불과 침구를 마련하여 주었다. 그 비구니는 남자의 속셈을 알아채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다른 비구니들에게 이를 말하니 오히려 이를 의심하였다.  
이로 인하여 부처님께서는 밖에 나가서 혼자 자지 말라는 독처숙계<sup>獨處宿戒</sup>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어느 때 여러 비구니들이 코살라국에서 사위국으로 가는 도중에 한 비구니가 대변이 급하여 용변을 마치고 혼자 뒤에 떨어져 가



다가 어떤 남자로부터 겁탈을 당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혼자 떨어져 다니지 말라는 독후행계 獨後行戒를 제정하였다.

석존은 이러한 여러 인연담을 하나로 묶어서 “어떤 비구니를 막론하고 혼자 숲 속을 지나가거나 혹은 홀로 강을 건너거나 홀로 밤에 외출하여 자거나 혼자 마을에 들어가거나 대중으로부터 혼자 떨어져 가면 이 비구니는 처음 짓는 것이라 하더라도 승잔죄가 된다.”고 하였다.

비구니가 이러한 승잔죄를 지으면 별주 別住라는 벌칙을 받게 된다. 일정 기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다만 참회를 하고, 그 참회가 인정되면 죄가 면하게 된다.

오늘날에 비추어 보면, 혼자 다녀서 당하게 되는 위험성은 비구니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모든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위험요소이자 큰 고통이며 두려움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혼자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있음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방도가 없다.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

다음호에서는 비구니 승잔죄 가운데 ‘죄가 있는 비구니를 정실에 따라 사면해서는 안된다’는 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릇된 견해의 왜곡을 뛰어넘어  
감관의 제어에 이르는 길을 얻으니  
‘나에게 궁극적인 지혜가 생겨,  
남에게 이끌릴 필요가 없다’라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나무 이야기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갑자기 인제읍에 갈 일이 생겼다. 길이야 여러 갈래지만 내가 사는 강릉에서 인제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고속도로를 타고 속초까지 가서 미시령을 넘는 것이다. 미시령 터널을 통과하는 길은 도로가 넓찍하고 급커브 구간도 없다. 가파른 1차선 도로를 구불구불 올라가야 하는 한계령에 비해 2~30분쯤 빠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이용한다.

하지만 나는 늘 한계령을 넘는다. 설악산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한계령 길은 눈 닿는 곳마다 모두 한 폭의 그림이다. 한 굽이 돌아서면 멀리 설악의 능선이 아스라하고 또 한 굽이 돌아서면 웅장한 기암괴석이 성큼 다가서는 수려한 풍광이 압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숲이다. 굳이 먼 길을 돌아 한계령을 넘는 건 이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를 보기 위해서다.

혹한을 견딘 나무는 봄이 되면 어김없이 싹을 틔운다. 아기 손바닥처럼 여리던 잎은 여름 햇살을 받아 초록을 더하며 무성해지고, 어떤 나무는 꽃을 피우고 또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기도 한다. 단풍이 물드는 가을 숲의 아름다움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장렬하게 잎을 떨군 나무 위로 눈이 쌓이고, 나무가 견뎌내는 침묵의 시간만큼 거울이 깊어진다.

그렇게 한 해를 사는 동안 나무는 저마다 나이테 하나씩을 더했을까. 내 생각처럼 나무도 내게 묻고 싶지는 않을까. 살아온 세월만큼 단단한 나이테를 더해 왔느냐고. 인생의 가을 무렵을 걷고 있는 지금, 나는 얼마나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느냐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가로젓다가 살짝 얼굴을 붉히기도 하면서 나무와 나누는 이야기는 따뜻해서 참 좋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계령을 넘는다. 한계령 초입, 계곡으로 흘러내린 산자락에는 단풍이 절정이다. 오색약수터 즈음해서는 낙엽이 흘날리더니 거기서 조금 더 오르자 이미 알몸이 된 나무들이 때 이른 첫눈을

이고 서 있다. 아! 그리고 보니 나무는 어느 새 겨울을 살고 있다. 나무의 순응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나무는 제자리에서 평생을 살아간다. 그곳이 척박한 산비탈이나 바위틈이라 하더라도 투정을 하거나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법이 없다. 주어진 그 자리에서 강인한 생명력으로 뿌리를 내리고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맛있는 과일이나 귀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건 대부분 작은 꽃이다. 꽃잎도 여린 흡꽃잎이 많다. 뿌리는 부지런히 물을 빨아올리고 잎은 햇빛을 모아 영양분을 만드느라 분주해진다. 세상 무엇이든 잉태는 축복이고 기쁨이다.

나무의 속내를 알 수 있는 건 가을이다. 나무는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여름내 품어왔던 색깔의 절정 단풍도, 비와 바람을 견디면서 애써 키우고 살찌운 열매까지도 미련 없이 툭툭 떨어뜨린다. 그 열매는 땅에 떨어져 또 나무가 되어 또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는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 뿐, 나무의 수고는 얼마나 지난했을까. 빈 가지로 남아 겨울을 지키는 나무의 묵묵함에서 우리네 사람살이를 본다.

우리가 그러하듯, 나무에게도 새 시대를 살아갈 새 생명에게 자리를 내어 줄 날이 올 것이다. 대목장의 손에서 후대까지 칭송받을 건물의

늠름한 기둥이 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솜씨 좋은 목수에 의해 멋진 가구가 되거나, 누군가의 야문 손끝에서 아기자기한 소품이 되는 것도 영광이다. 대부분의 갑남을녀처럼 대개의 나무도 찬란한 날들을 뒤로 한 채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져 간다. 숲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이렇듯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나무의 희생이다.

나무의 또 다른 희생을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 높은 곳에 위치한 절에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닌 나무부처가 모셔져 있었더란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부처를 보기 위해 나무계단을 밟고 오르내렸다.

이에 불만을 품은 나무계단이 한밤중에 나무부처에게 “똑같은 나무인데 너는 왜 사람들이 우리리보며 경배를 하고 나는 흙투성이 밭로 밟고 다니는 거냐?” 하는 불평을 쏟아 놨다.

그러자 나무부처가 “나는 너보다 칼을 많이 맞았다.”라며 웃더란다. 계단에 쓰일 나무는 칼을 몇 번만 맞아도 되지만 부처의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천 번이 넘는 칼을 맞아야 한다는 이 이야기는 곧 고통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야 그 다음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온 산에 나무다. 온 세상에 사람이다. 이름 모를 사람은 있어도 이름 없는 나무, 이름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누군가의 가슴에 심어진 한 그루 나무다.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불러 줄 것이다. 그리고 추억해 줄 것이다. ━

이미 지나간 일을  
비난하여 무엇하리

공자(孔子)



成事不說  
遂事不諫  
既往不咎

이미 이룬 일은 말하지 않고  
이미 끝난 일을 말하여 무엇하며  
이미 지나간 일을 비난하여 무엇하리

### 아무리 후회한들

노인이 값이 비싸 보이는 도자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도자기를 보고 아름다움에 놀라 모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조심스럽게 가던 노인이 그만 돌부리에 걸려 몸을 휘청거리다가 길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들고 있던 귀한 도자기가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툭툭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치우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길을 갔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보기엔 상당히 값나가는 도자기인 것 같은데 그 보물 같은 귀한 것을 깨트리고 어찌 뒤도 안 돌아보고 담담하게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부서진 도자기를 보고 아무리 후회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소?  
뒤늦게 후회하느니 차라리 앞을 잘 보고 조심하며 걸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 마무리

덕현  
법천사 전수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가을빛을 지나 이제는 잣빛이 돌기 시작 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흰 눈으로 덮일 것입니다. 한해가 저물어 가고 12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올 한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좀 더 알차게 보낼 걸’ 하면서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12월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달이자 다가오는 한해를 계획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시작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인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총전』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수공水工은 배를 잘 만들고,  
궁사弓師는 뿔角을 잘 다스리고,  
재주 있는 목수는 나무를 잘 다스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몸을 잘 다스린다.

- <법집요송경>

수공이나 궁사, 목수처럼 자기가 잘 하는 것을 더욱 잘하는 것을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잘 다스리면 불교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따라서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잘 다스리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것이고, 그러면 결과 또한 좋아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잘 살필 줄 알고, 행동 또한 지혜롭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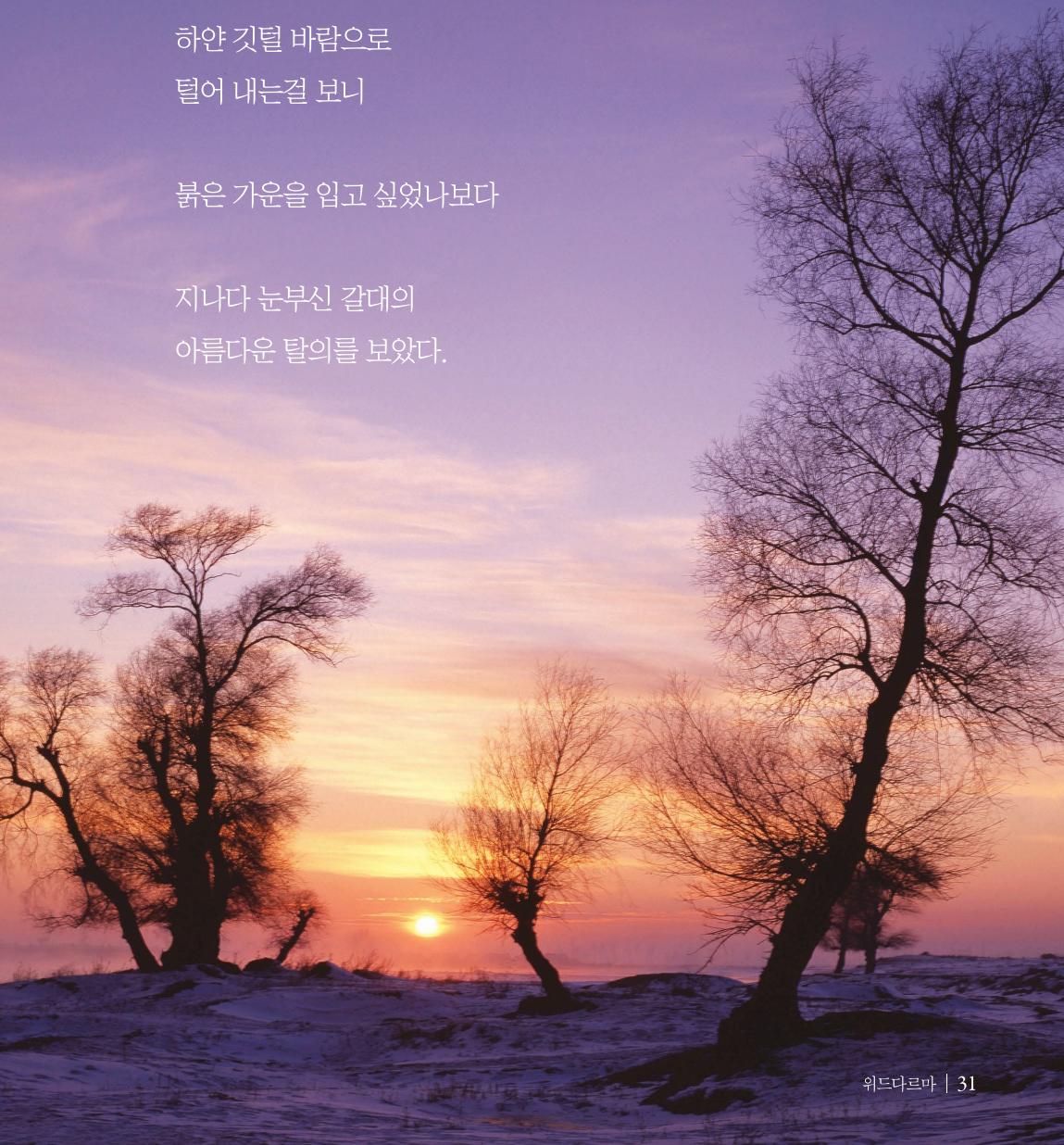
## 석양이 보여주는 것

김대곤  
시인

하얀 깃털 바람으로  
털어 내는 걸 보니

붉은 가운을 입고 싶었나보다

지나다 눈부신 갈대의  
아름다운 탈의를 보았다.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올 한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혜롭지 못할 때도 있었고, 후회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마음을 지혜로 가득 채우면 어떨까요?

그러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탐심·애욕·어리석음을 모두 지우고 자비와 배려로 채워야 합니다. 지혜는 자비와 배려로 채워지고, 이를 함께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 마음을 잘 아는 것도 지혜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생각·태도가 어떠한지를 반성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이 지혜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동안 내가 소원<sup>疏遠</sup>했던 친구나 가족에게 올 한해가 가기 전에 미안하단 전화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고마웠던 분들에게도 감사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춥고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옵니다.

12월이 춥고 긴 겨울이 되겠지만, 자신에 대한 마무리를 잘하면 따뜻한 봄날이 찾아 올 것입니다. ■

사랑  
가득한  
연말  
되세요

# 세한歲寒의 푸르른 소나무

기대승(奇大升)

1527~1572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 세한歲寒의 푸르른 소나무

松竹蒼色映關  
向來幽興獨盤桓  
浮生蹤跡誰如意  
留取芳盟到歲寒

송죽창창색영관  
향래유흥독반환  
부생종적수여의  
유취방맹도세한

송죽의 푸르른 빛이 사립문에 비치니  
지난날 깊은 흥취에 홀로 배회하노라  
덧없는 인생이야 뉘라 뜻에 맞을 쏟아  
꽃다운 맹세 간직하여 세한에 이르리

『고봉집(高峯集)』

우리는 봄에 새싹의 파릇함을 본다. 그러나 풀과 나무들은 여름의 무성함과 가을의 단풍을 거쳐 대부분은 낙엽이 되어 사라져 간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절기의 순환 속에서 이러한 모습은 자연스럽기 만하다.

공자<sup>孔子</sup>가 『논어』에서 “날이 추워진 뒤라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게 된다。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也”라고 하였는데, 이후 군자들은 소나무를 사랑하였다. 추운 겨울이 되어 모든 나무가 잎이 지고 시들 때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변치 않는 지조에 비유하여 높이 평가한 것이다.

새싹이 돋아나는 봄에는 저마다 희망의 미래와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비단 풀과 나무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인간도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존재이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동일한 생장의 과정을 거친다. 어린 시절 우리는 저마다 원대한 꿈을 설계하고 노력에 따라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자신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현실에 떠밀려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세한<sup>歲寒</sup>’은 단순히 노년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흔히들 시련의 시기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시련과 곤경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모습이 바로 세한의 소나무인 것이다.

시인은 송죽의 푸르른 모습을 보며 홀로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며  
상념에 잠긴 듯하다. 부침이 반복되는 인생사에서 애초 마음먹었던  
일을 다 이룬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시인도 여의치 않은 일이 많았나 보다.  
그러나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마음만은 변치 않으리라 다짐하고 있다.

이제 세한의 계절이 되었다. 나에게 남은 푸르름은 얼마나 되는지,  
또 나는 주변 사람에게 변치 않는 푸르른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하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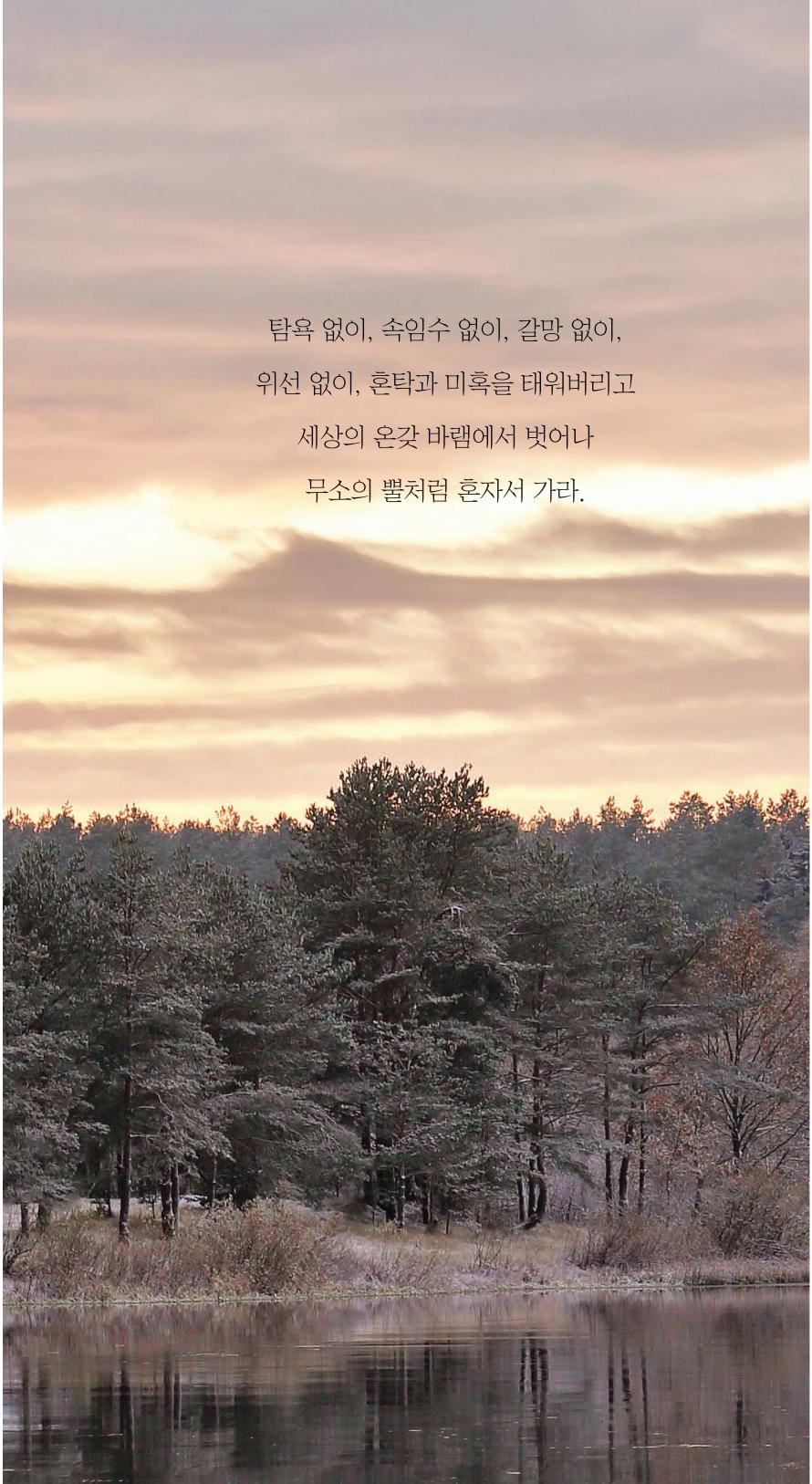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이정원 선임연구원

####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탐욕 없이, 속임수 없이, 갈망 없이,  
위선 없이, 혼탁과 미혹을 태워버리고  
세상의 온갖 바램에서 벗어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돈·직위·명예가 ‘나’를 대신할 수 없다

법률

정토회 지도법사  
평화재단 이사장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위치에 서면 권위의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장이다, 부장이다, 아빠다, 선배다 하는 권리가 마치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합니다. 어느덧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동작이 느려지고 무거워지는데, 이 지위에서 밀려나면 한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돈, 직위를 잃으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심리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늘 목에 힘주고 어디에 가든 앞자리에 앉고 주위의 시선을 받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물러나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허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집에서도 남편이 돈을 벌어올 때는 “커피 타 와라, 신문 가져와라.”

큰소리를 좀 쳐도 부인이 아니꼽지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돈을 안 벌면서 그 버릇을 못 버리면 구박을 받기 쉽습니다.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그것도 못 해.”

그러면 남편은 심리적으로 부인에게마저 무시당하는 것 같느낍니다. 밖에서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부인으로부터 돈 못 번다고 무시당한다 싶으면, 자괴감 같은 걸 느낍니다. 쓸모없는 인간 같고,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늙는데, 자괴감을 이기려고 과음까지 하다보면 건강을 해치고 명을 단축하게 됩니다.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녀들과도 갈등이 생깁니다. 자녀들은 보통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가령 대학 다니는 아들이 어머니가 있는 데서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누워 있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있는 데서는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보통 아버지 방에 가서는 인사만 꾸벅 하고 나와서는 어머니하고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늙으면 외롭고 또 자식들 생활이 궁금하니까 자식에게 가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만 자식들은 불편하니까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것은 자식만 탓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젊을 때 소위 권위주의로 살았던 과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나아가 들어서도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권위주의를 극복하려면 돈 잘 벌 때, 직위가 있을 때, 그 직위나 돈으로 나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업무를 볼 때만 그 역할을 하고, 오후에 나가서 식사하거나 술 한 잔 할 때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친구처럼 대한다면 직위가 떨어져도 옛 직장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직위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은 직위가 없어지면 바로 떨어져버립니다.

젊을 때부터 권위주의에 익숙해지면, 퇴직 후에 수워나 청소 같은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전 직위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체면 때문에 허드렛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대체로 잘 적응합니다. 특히 주부들은 부유하게 살았더라도 자기가 직위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어서, 어려우면 어디 가서 청소든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면 여성이 더 생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70이 넘고 80이 되어도 손자를 봐주고 설거지라도 합니다. 하다못해 집이라도 지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모시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권위적인 남자는 늙으면 별 쓸모가 없습니다. 늙은 시아버지는 옆에서 밥도 해줘야지, 청소도 해줘야지, 커피도 끓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모시기 힘들어집니다.

늙어서 쓸모없어지는 것은 육체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권위의식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도 출세해서 권위의식을 갖게 되면 늙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직위는 임시적으로 주어진 하나의 역할일 뿐인데, 그 지위가 곧 자기라고 생각하다가 직위를 잃으면 공허감이 뒤따르게 됩니다. 본인이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 그 지위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자기 조절을 잘 해야 나이 들어서도 가정에서나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일도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인생수업』



# 새벽에 귀를 기울여라

법정

1932~2010  
조계종 스님  
길상사 창건  
수필가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예불하고 점점 밝아오는 창 앞에 허리를 펴고 마주앉아 있는 이 투명한 시간을 나는 즐기고 싶다. 차가운 개울물 소리에 실려 어김없이 쪽독새가 “쪽독쪽독”하고 집 뒤에서 한참을 울어댄다.

달밤이나 새벽에 많이 우는 쪽독새를 일명 ‘머슴새’라고도 하는데, 부지런한 이 새의 생태로 봐서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이윽고 휘파람 소리로 4박자로 우는 검은등 뼈꾸기와 이에 장단을 맞추듯 “웅 웅 웅”하고 병어리뼈꾸기가 새벽을 밝히고 있다.

이 시간에 거리에는 그 전날 사람들이 어질러 놓은 자리를 묵묵히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거룩한 움직임이 있다. 또 시장에는 새벽장을 여는 부지런한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 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는 밤잠을 자지 않고 밤새워 짐을 나르는 화물차의 행렬이 있다.

이와 같은 새벽 풍경은 곁에서 바라보기에도 뿌듯하고 든든하다. 활기찬 생명력이 이웃에까지 번져오는 것 같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른 새벽에 깨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들이다. 전문가들의 체험에 의하면, 어둠과 밝음이 교차되는 이런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서도 명상하기에 가장 알맞은 때라고 한다.

명상이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과 다른 무엇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의 한 부분이다. 묵묵히 쓸고 닦는 그 일이, 시장에서 무심히 사고파는 그 행위가, 또한 맑은 정신으로 차분하게 차를 모는 그 운전이 바로 명상으로 이어진다. 어떤 직종에서 무슨 일에 종사하건 간에 자신이 하는 일을 낱낱이 지켜보고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는 것이 명상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자기 자신을 안팎으로 냉철하게 살펴보면 된다.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무슨 일을 좋아하며,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무엇을 삶의 최고 가치로 삼고 있는지, 곰곰이 헤아려보면 자기 존재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이런 명상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바깥 소용돌이에 자칫 휘말리게 마련이다.

자신을 안으로 살피는 일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날이 갈수록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되어간다. 저마다 자기 삶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지를 한때라도 생각을 가다듬고 살필 수 있었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졌을 것이다.

우리는 예전에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밥술이나 먹고 살게 된 오늘에 와서까지 물질지향적인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는 국민총생산량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국민의 총행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상태였다.

그러나 요즘 정신세계의 흐름을 보면 물질 지향적인 데서 벗어나 삶의 질을 문제 삼는 영적인 변혁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나는 요즘 해거름에 맨발로 채소밭에 들어가 김매는 재미를 붙이고 있다. 벗은 발로 부드러운 밭 흙을 밟으면서 파릇파릇 올라오는 새싹들을 보며 김을 매고 있으면 마음이 아주 느긋하다.

방안에 앉아 좌선을 할 때보다도 훨씬 즐겁고 신선하다. 흙은 이렇듯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힘의 원천이다.

어떤 명상가는 말한다.

“명상은 창문을 열어 놓았을 때 들어오는 산들바람이다. 그런데 일부러 창문을 열고 얹지로 불러들이려 하면 그 산들바람은 들어오지 않는다.”

새벽에 일어나 자신의 삶에 귀를 기울려 보라.  
“나는 누구인가”하고 스스로 물어보라. ━



# 불기운이 왕성한 화왕산을 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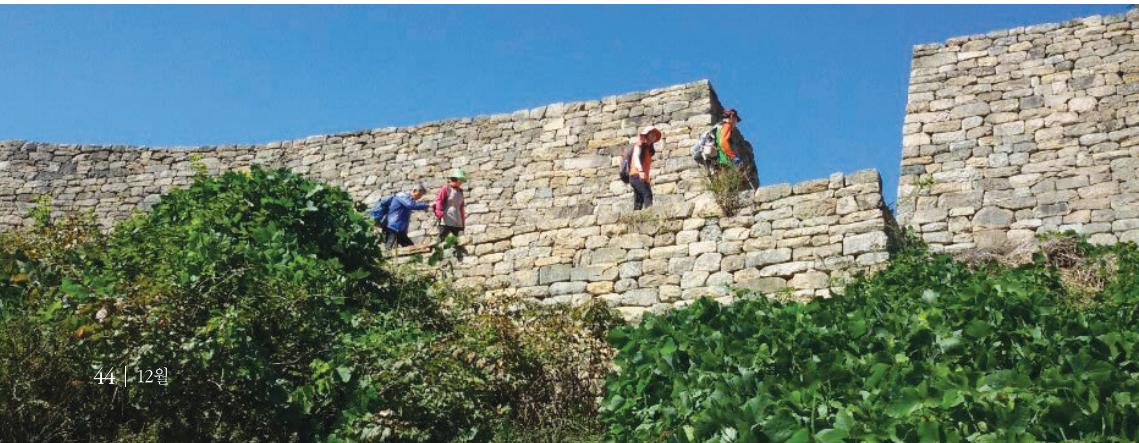
강경중  
정각사 단월회 회장

## ① 창녕 고을에 들다

이번 산행은 창녕 화왕산이었다. 창녕에는 한때 이름을 날렸지만 지금은 퇴기<sub>退岐</sub>나 다름없는 부곡온천과 우포늪 그리고 관룡사가 있다. 그 중에서도 창녕의 진산인 화왕산이 그 중심이 되었다. 낙동강 하류지대에서 솟아올라 그 실제 높이는 그리 높지 않으면서 산세가 장대하게 느껴지는 산이다.

## ② 남문으로 입성하다

한참 동안 오르던 우리는 돌계단을 돌아 남문에 들어섰다. 은빛의 용단 같은 억새가 광활하게 펼쳐졌고 불어오는 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다. 아니, 춤이라기보다는 억새의 바다에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잘 자란 시월의 억새는 한 때 이 성을 지키던 의병들의 기개처럼 굳세어 보였다.



## ③ 삼지연과 배바위

오른쪽 언덕에 비석이 하나 보였다. ‘창녕조씨득성비<sub>昌寧曹氏得姓碑</sub>’다. 이 성지<sub>城地</sub>는 창녕 조씨의 시조가 출현한 성지<sub>聖地</sub>고 성지<sub>聖池</sub>라는 것이다. 나는 고<sub>高</sub>씨, 양<sub>梁</sub>씨, 부<sub>夫</sub>씨가 출현했다고 하는 제주의 삼성혈<sub>三姓穴</sub>이 떠올랐다.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하고 누가 물었다. ‘이 산은 창녕의 진산이고 성지이니 창녕이 본관<sub>本貫</sub>인 조씨<sub>曹氏</sub>로서는 그럴만하지요. 이 땅의 흙은 시조의 어머니 몸이고 이 곳의 물은 어머니의 자궁이 되니까요’

이 성은 1억 4천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하면서 솟아오른 분화구며 그대로를 산성으로 축조한 것이다. 이 성을 한 바퀴 도는 데는 한 시간 남짓 걸린다고 한다. 최초로 성을 축조한 때가 삼국시대라고 하며 임진왜란 때 곽재우 장군과 일천 의병들이 이 성에서 큰 공을 세운 후 폐성<sub>廢城</sub>의 가치를 재인식하여 성을 크게 보완했다고 한다.

우리는 성벽을 왼쪽으로 끼고 배바위로 올랐다. 배바위(756m)는 천길 낭떠러지인 위에 높이 솟아 있다. 화왕산 정상(757m)과 높이가 1m 차이란다. 창녕 시가지가 가내려다 보였고 정상쪽의 기암괴석과 관룡산의 바위절벽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산성 안의 전경도 일모에 조망할 수 있었는데 산성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항공모함 같았고 우주의 바다로 항해하는 느낌이었다.

#### ④ 화마의 저주와 회한

이 산성에서 해마다 정월대보름에는 억새를 태우는 '갈대제'라는 축제를 했고 10월 초에는 억새밭 십리 길을 손에 햇불을 들고 행진을 했다.

전국에서 몰려든 구경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휘영청 밝은 달빛을 받아 눈부시게 넘실거리는 억새의 바다에 불을 지른다. 솜 같은 억새가 아우성치며 타오르는 장관을 보고 환호성을 지른다. 불기운은 점점 더 거칠어가고 환호성 또한 절정에 이른다.

화왕산火旺山! 불기운이 왕성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화왕산에서는 실화로 인한 화재가 잦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실화가 아니고 인위로 불을 지른 인재다. 억새라는 화약을 가득 싣고 항해하는 함상에서 손에 햇불을 들고 돌며 그 화약에다 불을 지피다니!

그리고 또 그 곳에서 터 잡고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의 아우성 소리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제 기분에 도취 되어 환호작약했던 군중들의 부끄러운 야수성! 이와 대조하여 한 마리의 도롱뇽이라도 희생시킬 수 없다며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을 했던 천성산 도롱뇽의 호위신장 지율스님을 떠올려본다.



#### ⑤ 놓지 못했던 두 가지 화두

나는 산을 내려오면서 두 가지의 화두를 줄곧 놓지 못했다. 하나는 화왕산이란 산 이름이다. 산 이름과 이 산의 잦은 화재와 참상! 이들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창녕은 옛 이름이 '비사벌'이었다는데 이는 '빛 별' 즉 '빛 고을'이란 뜻이 되고 빛은 곧 불과 다르지 않다. 부곡金谷이란 가마골이다.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땅에 고온의 온천수가 솟아나고 있으니 지표 가까운 곳에 불덩어리가 꿈틀거리고 있음이다. 그러니까 화왕산 뿐 아니고 창녕 고을 전체는 불기운이 이글거리는 고장이다.

또 하나의 화두는 억새밭에서 축제를 하면서 그 공식 이름이 '갈대제'라 했다니? 산이나 언덕에서 자라는 것은 억새고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강의 하구에서 자라는 것이 갈대인데 그 모양이 비슷해서 착각을 한 것인가?

산을 내려와 부곡의 온천 가마솥에 고단한 몸을 담갔다. 하루의 피로가 가시고 한결 정신이 맑아졌다. 줄곧 잡고서 놓지 못했던 나의 화두도 온천 가마 안에서 가물없이 녹아내렸다. ━



# 잘 사는 방법

법수연  
화음사 전수



## 선행

(종조법설집 수행편 p.143)

- ❶ 사사로서 공중일에 방해되게 하지 말며  
공중법을 어기고서 질서문란 하게 말며  
자기의견 고집하여 윗사람에 대항 말고  
부귀인과 권력인에 간사하고 아첨 말며  
빈천인과 아랫사람 거만하게 경만 말라  
아래사정 모르며는 윗사람이 못될지요  
위의 뜻을 모르며는 성실하지 못할지라
- ❷ 내 자랑을 하지 말고 남의 험담 하지 말며  
남의 은혜 모르고서 배은망덕 하지 말며  
한꺼번에 큰 부자가 되려하지 말것이며  
나의 이익 위하여서 적은 일에 투쟁말고  
나의 것을 남을 좀에 인색하게 하지 말며  
남의 것을 바라기에 너무 무례 하지 말며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마음 둔것 먼저 알아  
내 마음에 미루어서 생각하여 볼지니라



종조님 말씀 중에 어느 구절이든 우리 삶의 모범답안 같지 않은 것  
이 없습니다. 제가 교도시절이었던 어느 자성일, 불공하러 가는 전철  
에서 종조법설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릴 때가 다 되어 짐을 추스르  
는데, 옆에 앉은 중년신사가 “이 책 어디서 구입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불교총지종 종조님의 말씀을 발간한 책입니다”  
라고 했더니 구하고 싶다기에 선뜻 드리면서 “소중하게 보시고 다루  
어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는 법설집을 30여분 동안 곁눈으로 계  
속 보셨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소중한 인연으로 좋은 공부를 하고 있  
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사 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행복함과 자부심이  
느껴지더군요.

잘 살고 싶지 않은 자가 과연 있을까요? 하지만 잘 사는 방법을 모  
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조님께서는 위에 인용된 경의 제목처  
럼 행을 닦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  
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얼마  
나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피해를 본 사람들의 양 만큼 자신  
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서원당 같은 공공장소를 깨끗이  
청소했다면 그 곳을 드나드는 사람마다 “아! 깨끗하네. 누가 이렇게  
청소를 했지.”라는 칭찬의 좋은 기운이 돌고 돌아 청소를 행한 사람에

게 돌아가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열반하신 복지화 전수님께서 총지사 재임 시절 점심공양을 하시며 “우리 서원당에 복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데 어느 복 많은 이는 그 복을 주워 갈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수저질을 멈추고 곰곰 생각했습니다. ‘나도 복을 줍고 싶다. 불공할 때 아무것도 특별한 것은 보지 못했는데...’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 공양도 하는 등 마는 등 하고는 전수님을 따라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의 마음을 알아챈 전수님은 “기도하는 서원당을 청소하는 걸 말한 게다. 시간이 있고, 몸도 성하고, 기쁜 마음으로 청소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내가 청소해 놓은 깨끗한 곳에서 소원을 성취하라고 발원하며 말이다.”라고 하셨어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봅시다. 나 하나 편하자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을 한다면 보고 듣는 사람들의 비난의 기운을 받게 되니 화<sup>\*</sup>의 통장에 잔고를 늘리는 일이 되겠지요.

‘아래사정~’이 구절을 보면 재미나는 옛날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들판에서 농사일을 하다 집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빨리 가서 저녁밥을 지어야 되니 시아버지 앞에서 총총 총 걷는 중 방귀가 그만 ‘뽕’하고 나와 버렸습니다. 민망해진 며느리가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뒤에서 걷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아야, 아야!”하며 귀에 손을 댄 채 며느리를 앞질러 걸었습니다. 집에 먼저 도착한 시아버지께 “아버님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해도 “뭐라고 하는지 안들린다. 아까부터 귀가 육신육신 거리더니 너무 아프구나.”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귀도 걱정이긴 했지만 자신의 방귀소리를 못 들었다는 사실에 안도를 하였습니다. 마음이 편해진 며느리는 정성을 다해 시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무안해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며느리의 깊은 효심을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지요. 며느리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시아버지의 지혜로운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듯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 윗사람은 대우를 받고 아랫사람은 성실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배은망덕함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입지 않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불자라면 풀 한 포기의 푸르름에도, 스쳐가는 바람결에게도 감사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세상 살아가면서 인연소외로 맺어진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간 지중한 은혜 속에 존재함을 잠시도 잊지 말고 은혜 갚을 행을 실천해야겠습니다.

남의 것을 바라면 항상 섭섭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무주상보시가 공덕이 큰 것은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씨앗 뿌려 놓고 짹이 트나 안 트나 자꾸만 꽈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보노라면 종조님 말씀하신 현세정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네요.

때는 바야흐로 정유년의 꼬리에 와 있습니다. 종조법설집을 공부하는 우리들이 말씀대로 얼마나 실천했나, 자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무술년에는 모든 불자들이 행복하길 두 손 모아 발원합니다. ━

12월

- 박재삼

욕심을 털어 버리고  
사는 친구가 내 주위엔  
그래도 1할은 된다고 생각할 때,

옷 벗고 눈에 젓는 나무여!  
네 뜻을 알겠다  
포근한 12월을

친구여! 어디서나 당하는  
그 추위보다 더한 손해를

너는 저 설목<sup>雪木</sup>처럼 견디고  
그리고 이불을 덮은 심사로  
네 자리를 덥히며 살거라



12월, 걸음이 늦춰지고 여기저기 시선 머물 데가 많아지는 날들이다.

다시 작별이란 것을 해야 하는 시간에 서있기 때문일까.

쓸쓸하다고 여겨질 만큼 마음은 고요해지고, 가끔씩 까닭 모를 눈물  
이 맺히기도 하는...

참 잘 살았노라고 스스로 토닥이며 한 해가 기울기를 소망하는 시간.

모든 생명들이 잠시 숙연해져도 괜찮은, 몸과 마음의 온도가  
데워지기를 희망하는 시간.

이불을 덮은 심사로 나와 너, 우리라는 인연을 따뜻하게 덥힐 수  
있도록 지극히 기도하는 시간.

12월, 나무를 떠난 잎들이 바람에 몸을 맡기고 가벼워진다. ━

# 커피의 원산지

김성윤  
음식 전문기자

커피의 원산지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고산<sup>高山</sup>지대라는 설과, 홍해를 사이에 두고 에티오피아와 마주 보는 아라비아반도의 남부 예멘이라는 설이 있다.

에티오피아 원조설의 주인공은 칼디<sup>Kaldi</sup>라는 염소치기 소년이다. 2,700여 년 전 어느 날, 당시 아비시니아라고 불리던 에티오피아 남서 쪽 카파<sup>Kaffa</sup> 지역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살고 있던 칼디는 자신이 키우던 염소가 잠들지도 않고 춤추듯 날뛰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칼디는 양들이 숲 속의 작은 나무에서 열리는 빨간 열매를 따먹으면 흥분하고 기운에 넘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한 칼디는 자신이 직접 열매를 따먹어 보았다. 그랬더니 온몸에 힘이 넘치고 머리가 맑아지는 게 아닌가? 칼디가 발견한 이 빨간 열매가 바로 커피였다는 전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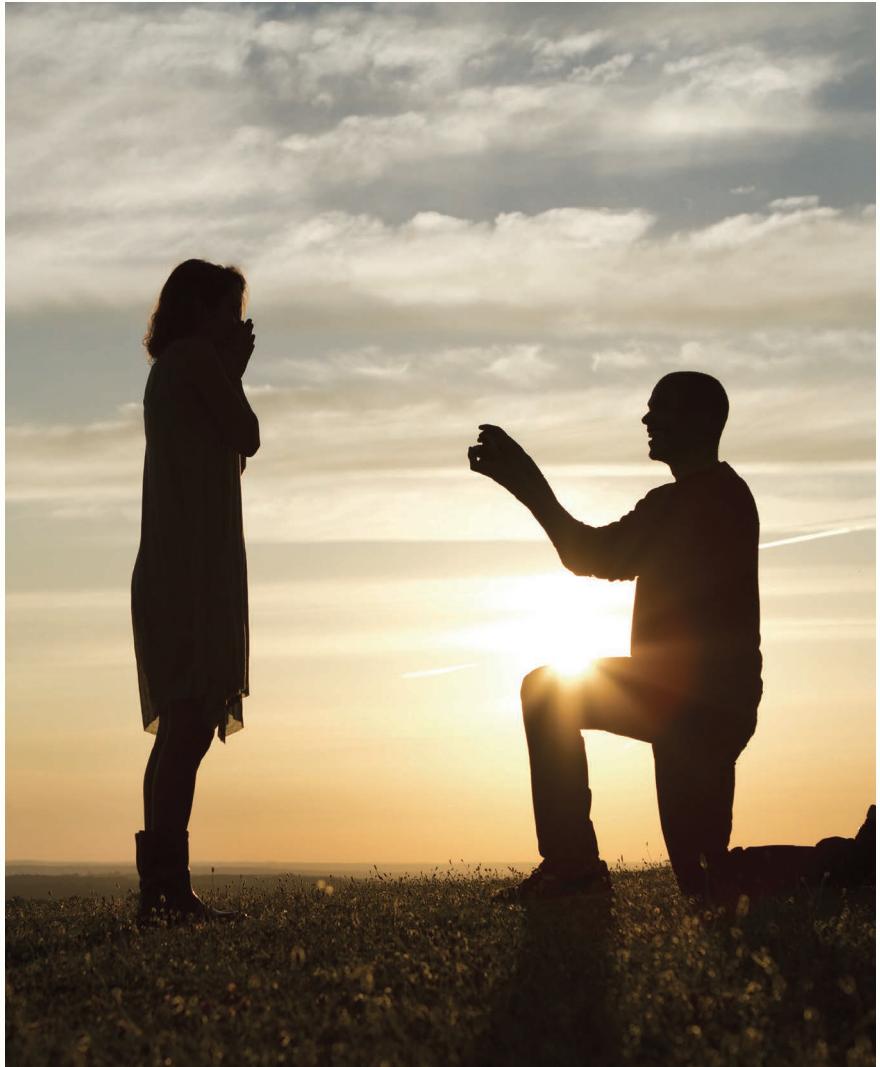
예멘 축 전설의 주인공은 알리 벤 오마르 알 샤딜리<sup>Ali ben Omar al-Shadili</sup>라는 이슬람 사제이다. 오마르는 이슬람교의 일파인 수피교 사제로, 기도와 약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가진 자였다. 1258년쯤 정적<sup>政敵</sup>들 의 모함으로 예멘 모카<sup>Mocha</sup>항 인근 사막으로 쫓겨난 오마르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이때 오마르는 붉은 열매가 매달린 작은 나무를 보았다. 젊주림과 목마름에 허덕이던 오마르는 이 붉은 열매를 따먹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피로가 눈 놀듯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졌다. 오마르는 이 열매가 알라(신)의 선물이자 축복이라고 믿었고, 이 열매를 달여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다. 오마르의 소문은 이슬람 세계 전역으로 퍼졌고, 그는 ‘모카의 성인<sup>聖人</sup>’으로 추앙 받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커피를 오늘날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은 예멘의 무슬림(이슬람교도)들이라는 주장에는 누구나 수긍하고 있다. 술을 마실 수 없었던 무슬림들은 술 대신 카페인에 빠져들었다. 이 때문에 커피는 ‘이슬람의 와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무슬림들이 커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커피에 관해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페르시아의 현대 무용담에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예언자 무함마드가 졸음을 이기려 애쓰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음료를 주고 갔으며, 이 음료가 바로 커피라는 이야기가 있다. 커피가 바로 신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

-『커피 이야기』

## 미녀는 왕자로 변한 야수를 사랑했을까

박현희  
독산고 사회교사



### 왕자로 변한 야수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마음씨도 착하고 지혜롭기도 한 우리의 주인공은 야수의 험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야수를 사랑했다. 진심으로,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야수가 왕자였던 것이다. 내가 궁금한 것은 왕자로 변한 야수를 그 아가씨가 계속 사랑했을까 하는 것이다.

미녀가 사랑한 것은 야수였다. 야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을 수도 있지만 야수이기에 사랑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무슨 턱도 없는 소리냐고?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든 마음 한구석으로 야수를 꿈꾸지 않나?

누구든 계획되고 예정된 길, 세상 사람들이 기대한 길에서 벗어나 오직 욕망에 충실해지는 순간을 열망한다. 그게 사랑이다. 눈에 콩깍지가 쓰이고, 판단력은 흐려지고, 상식은 뒤로 물리나고, 자제심은 약해진다. 그가 아니면 나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랑의 순간. 다시 말해 본능에 충실한 야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왕자는 운명의 상대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할 수 없다. 돈이든 권력이든 뭔가가 있는 사람들의 결혼은 그렇게 우연에 의지할 수 없다. 이 남자가, 혹은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돈이나 권력을 좋아하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방법은 딱 하나다. 내가 가진 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 그런데 세상에는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 선택의 폭은 매우 좁아지고 그 좁은 물 안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기에 순순히 집안이 정해 주는 ‘적당한 혼처’를 선택한다.

운명적 사랑은 야수들에게 훨씬 쉽다. 일단 세상에는 왕자나 공주보다는 야수가 훨씬 많으니 선택의 폭도 넓고, 결정적으로 어떤 선택을 한다 해도 크게 잃을 것이 없다. 그래서 앞뒤 재지 않고 거리에서 그녀를 쫓아갈 수도 있고, 무작정 차나 한잔 하자고 들이댈 수 있다. 하지만 왕자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미녀는 왕자로 변한 야수를 계속 사랑할 수 있었을까? 우리의 주인공이 만난 남자가 처음부터 왕자였다면 주인공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렇게 애면글면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혹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다 해도 보다 거만한 자세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잘났는데 날 사랑하지 않고 배기겠어?’ 하는 마음으로 말이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미녀는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현명한 아가씨이니 자신을 낫출 줄 모르는 거만한 남자에게는 마음이 끌리지 않았을 것 같다.

더 궁금한 것은 왕자의 마음이다. 왕자로 변한 그 남자는 계속해서 그 미녀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불우했던 시절은 끝나고 이제 세상이 그의 것인데, 계속해서 그 시골 처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고시 공부하는 남자 뒷바라지로 짊은 날을 다 보낸 여자가 남자의 고시 합격 후에 헌신짝 취급 당하는 스토리가 떠오른 것은, 내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탓일까?

### 야수를 사랑하는 방법

어차피 세상 남자들은 대부분 왕자가 아니라 야수이고, 그러니 공주가 아닌 여자들이 만날 남자 역시 야수일 뿐이라면 우리는 왕자와 만날

날을 기다리기보다 야수와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을 깨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야수라는 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가 어느 날 왕자로 변하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는 편이 좋다. 그가 정리 정돈이라고는 모르는 남자라면 평생 어지르며 살 것이고, 그가 경제 관념이 약한 남자라면 평생 어지르며 살 것이고, 그가 경제 관념이 약한 남자라면 카드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도 마찬가지 아닌가. 나는 늦잠 자는 습관을 떨치기가 힘들고 충동적으로 옷을 사들이는 행동을 반복하며 작은 일에 발끈하는 성미를 그대로 달고 살아가지 않는가. 서로가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해 보겠지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 하지만 내가 공주가 아니라도 그가 나를 좋아했듯, 그가 왕자가 아니라도 내가 그를 좋아했듯, 그 첫 마음을 기억하면 될 것 같다.

우리가 미녀와 야수 이야기를 읽으며 종종 까먹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야수가 왕자로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왕자였으나 잠시 야수로 변한 그가 왕자로 되돌아왔을 뿐이라는 점이다. 이야기 속에서 왕자가 야수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래 왕자였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그대가 아직 운명의 누군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잊지 마라, 그대. 어차피 당신은 왕자를 만나지 못하며, 당신이 만나는 야수를 왕자로 변신시키지도 못한다. 그리니 그가 왕자로 변신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하지는 마라. 하지만 야수도 나쁘지 않다. 내가 살 곳은 성이 아니라 들판이고, 나 또한 공주가 아니기에. ━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 줄까』

# 동지팥죽과 나한전

보현

실보사 전수



짙은 어둠이 물러가는 동짓날 새벽.

마하사 공양주는 팥죽을 쑤려고 부엌에 나가 화로에 불을 붙이려 합니다. 아궁이에 묻어둔 불덩이를 이리저리 찾아봤지만 밤사이에 꺼졌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공양주는 아랫마을 산지기 집으로 향해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별은 고사하고 주지스님 불호령이 곧 떨어질 것만 같아 그 마음은 안절부절이었습니다. 그 마음마냥 동짓달 찬바람은 매서운데다 눈이 발목까지 올라와 걸음이 잘 걸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을 칠.... 오늘따라 왜 눈은 와서 속을 썩인담..’

양지바른 언덕 산지기 집 굴뚝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보니 그제야 안심이 되고 반가웠습니다. 사립문을 열고 들어선 공양주는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이보슈~~!!”

“아니 아침부터 공양주 보살님이 웬일이세요?”

흔비백산 달려온 공양주를 보고 산지기는 의아해하며 맞이하였습니다.

“불씨를 얻으려 왔어요. 아궁이에 불씨가 꺼져 버렸지 땡니까.”

숨을 몰아쉬는 공양주를 산지기는 더욱 의아히 쳐다보며

“네? 조금 전에 행자님이 불씨를 얻으려 오셨기에 팥죽 한 그릇 드시고 불씨도 얻어 갔어요.”

공양주는 무슨 소린가 싶어 김서방에게 되물었습니다.

“행자님이요? 불씨를 얻어가고 팔죽도 드셨다고요?”

“네, 추운 길 오셨기에 따뜻한 팔죽 한 그릇 잡수고 가시라니 한 그릇 다 잡수시고 가셨어요.”

공양주는 마치 도깨비에게 훌린 듯 했습니다.

“우리 절에는 행자님이 없어요.”

공양주는 이 말을 남기고 다시 좀 전보다 더욱 바쁜 걸음으로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숨이 턱까지 올라 절에 도착하여 바로 부엌으로 향한 공양주의 눈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있었습니다. 아궁이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고 있고 팔을 담아 물을 부어둔 솥은 펄펄 끓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 지나가는 스님에게 불씨 꺼트린 이야기 차마 하지 못하고 의문의 행자스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허나 돌아온 대답은 본인도 예상했다시피 “행자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요?”였습니다.

의아는 했으나 크게 꾸중 듣지 않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서둘러 팔죽을 쑤었습니다.

먼저 한 그릇을 대웅전에 공양하고 나한전에 공양을 올리러 간 공양주는 나한님 앞에 팔죽을 내려놓다가 그만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아이구 나한님.”

공양주는 고개를 못 들고 그대로 엎드려 크게 절을 했습니다.

십육나한十六羅漢 중 오른쪽에서 셋째 나한 입술에 붉은 팔죽이 묻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공양주는 나한님이 불 없는 것을 보시고 동자로 화신하여 아랫마을 산지기 집으로 가서 불씨를 얻어다 죽을 쑤게한 것인 줄 깨달았습니다.

부산 연산동 금련산에는 신라 때 지었다는 마하사가 있습니다. 마하사에는 대웅전 바로 옆에 응진전이 있습니다. 응진전은 때로는 나한전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는 부처님의 제자를 모신 전각입니다. 나한은 일체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어 중생의 공양에 응할 만한 자격을 지닌 불교의 성자이십니다.

공양받기보단 먼저 불씨를 내주시고 빙그레 웃으시는 붉은 입술나한님의 따뜻함을 팔죽 한 그릇 감사히 먹으며 마음에 그려봅니다. ━



# 관심을 주세요!

경문지

천안두정초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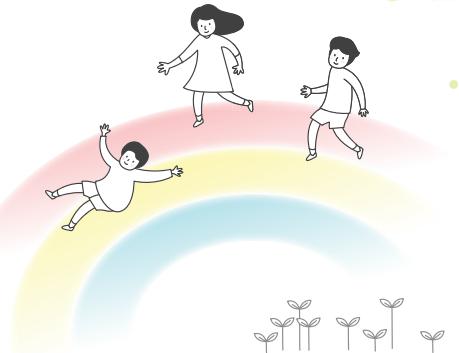


만화를 보면 간혹 이런 표현이 나온다.

‘우당탕탕!’

학교에서의 수많은 사건사고를 표현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의성어라 생각한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끼리 싸우는 소리, 수업 시간에 화가 난 선생님이 소리치는 소리, 학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물건을 집어 던지는 소리…

누군가 직접 본다면 입이 떡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이 아마 학교 밖에서 들었을 때는 다 저렇게 들릴 것이다.



물론 나는 학교에서 아직 대단히 많은 일들을 겪진 않았지만, 교실 내에서 나름대로 보고 듣고 경험하며 저 ‘우당탕탕’한 상황들의 원인들은 대부분 이 하나로부터 시작됨을 절감할 수 있었다.

바로 ‘관심 좀 주세요.’ 하는 마음이다. 최근의 두 사례를 들고자 한다.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한 6학년 여학생이 손목에 칼을 긋는 자해행동을 하였다. 다행히도 상처는 아주 경미한 정도였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집에서도 자해를 한 뒤에 그 손목사진을 친구 몇 명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보냈다고 한다. 상황인즉슨, 자신이 아끼는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내니 그것을 참지 못하고 모두에게 복수 아닌 복수를 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까지 자신의 마음을 분출한 것이 참 안타까웠지만,

“저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잖아요!” 울며 말하는 여학생의 말,

“관심을 그런 식으로 요구하면 친구들의 마음은 어떻겠니..”라는 선생님의 다독임 속에는 관심, 또 관심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5학년의 어느 반은 나와 같은 교과 전담선생님들 모두가 손에 꿁는, 소위 ‘답이 없는 반’으로 불린다. 7명 남짓 되는 아이들의 행동이 아주 도가 넘고 넘칠 정도인 것이다. 그 반의 담임선생님께서는 학년 초부터 아이들에게 단호하고 엄격하기 보단, 따뜻하고 친절히 대해주셨다고 한다. 이를 감사히만 생각해주었다면 참 고마우련만, 몇 명의 아이들이 이런 선생님을 ‘쉽다’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화근이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모습을 말하자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 1분단 친구가 멀기도 먼 3분단 친구에게 PC방에 가서 게임하자며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 수업시간마다 화장실을 간다고 하더니 복도에 둘셋이 모여 누워 키득대며 놀고 있고, 모둠 활동을 위해 자리를 바꿔라하시면 자기가 싫어하는 친구와 되었다고 “씨X!!”라며 욕을 하기 일쑤다. 그저 선생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었던 것에는 물론 오랜만에 복직하신 젊은 선생님께서 초기에 아이들을 엄하게 다스리기 보다는 그저 좋아지겠지, 그때그때만 혼을 내시며 보시다가 나중에는 심각성이 점점 커지자 지친 마음에 아이들을 포기하신 것도 있는 듯하다. 지금은 교장, 교감선생님께서 아시고서는 아이들이 다 무서워하는 체육선생님을 부담임 선생님으로 선정하여 협력지도하게 하셨고, 매일 아침과 점심시간에 상담시간을 확보하게 하여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다. 이 방안의 초점은 ‘관심 가득한’ 상담이다.

이 와중에 참 신기하게도 음악실 청소가 당첨됐다며 오는 아이들에게나 또한 관심을 보이려 노력했다. 그저 아이들의 변화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뭐해~?”, “승훈이는 무슨 게임을 제일 좋아해?”, “유성이는 칠판을 참 꼼꼼하게 청소해주는구나.”, “에구,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듣네! 아까는 교실에서 왜 그랬어?” 관심을 보이며 관계를 어느 정도 좋게 형성한 뒤에는,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나에게서, 아이에게서 술술 나온다. 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행동에 변화가 보이니 나 또한 신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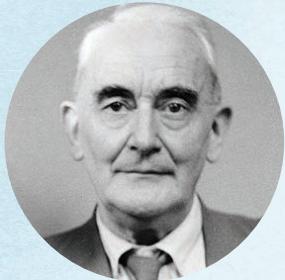
체육선생님 또한 말씀하시길, 처음에는 아이들이 거부감이 심했지만 매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주니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소수의 학생 말고는 아주 눈에 띄게 행동이 좋아졌다고 한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청소시간마다 만나는 나와의 대화 또한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자해를 한 학생의 속마음, 매일의 상담 후 달라지고 있는 남자아이들의 모습.

‘아, 결국 관심이었구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주변에 단 한 명의 소외도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주는 선생님이 있길, 학교에서의 생활은 어땠느냐며 진실어린 눈과 귀로 이야기 들어주시는 부모님이 있길, 너는 어떻게 생각해?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길.

간곡히 기원하며, 나는 이 속에서 누구보다 관심 가득! 품은 선생님이 되길 굳게 다짐해본다. ━

# 강자에겐 호랑이처럼, 약자에겐 비둘기처럼



정리 : 이선희

“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주시오.  
내가 도와주던 소년소녀들과  
불쌍한 사람을 맡아주세요.”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Frank William Schofield, 1889. 3. 15 - 1970. 4. 16)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는 캐나다의 장로교 선교사이자 수의사로서 세균학과 위생학을 강의한 교수이며, 자랑스런 대한민국 독립유공자이다. 또한 3·1운동의 ‘민족대표 34인’으로서 독립선언문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나, 엄연히 민족의 대표로서 활동을 하였다.

그는 석호필이라는 한국이름으로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에 더하여 제34인으로도 불리운다. 가난과 소아마비에 시달리던 영국 소년 스코필드 모든 역경을 딛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수의학 연구에 몰두하여 조선에 의료 선교활동을 하러 왔다가 34번째 조선 민족대표가 되었다.

일제의 반복된 암살 시도에도 일제만행을 카메라에 담아 전 세계에 호소하였다.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는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주시오. 내가 도와주던 소년소녀들과 불쌍한 사람을 맡아주세요.”라는 유언을 남겼다.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장 올리버 애비슨의 권유를 받아 한국에 오게 되었다. 한국에 온 그는 세브란스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평생의 동지이자 친구인 이갑성 선생을 만나 인생의 전환을 맞게 되었다. 평소 일본의 압제에 펑박받는 한국인들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던 그는, 이갑성 선생과 함께 교우하며 한국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3·1운동, 제암리 학살사건, 유관순 열사의 면담 등을 통해 일제의 만행을 목도하고 전 세계에 일제의 잔악함을 알리고,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일제에 의해 1920년 캐나다로 추방된 후에도 한국을 그리워하다가 1958년, 독립한 대한민국에 돌아와 여생을 보내고 1970년 작고하였다. 유해는 평소의 유언대로 제2의 조국 대한민국에 안장되었으며, 독립에 힘쓴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그는 돌과 같은 굳은 의지(석 石)와, 호랑이 같은 용맹함(호 虎)으로, 사악한 강자와 싸우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 돋겠다(필, 도울 弼 혹은 반드시 必)는 뜻의 ‘석호필’을 한국이름으로 삼았다.

그는 직장동료였던 독립운동가 이갑성이 비밀리에 추진 중인 만세 운동을 해외에 알려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아 3.1운동의 사진을 촬영, 글로 적어 해외에 알렸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그 해 수원 제암리 마을에서 일어난 1919년 4월 15일 ‘수원 제암리 교회 학살사건’ 즉, 일본군들이 제암리의 주민들을 교회에 몰아넣고 총을 쏘고 불을 질러서 죽인 학살사건을 촬영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본의 잔악행위를 전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5월 유관순 열사, 어윤희 독립운동가 등 갇혀있던 서대문 형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일본에 만행을 중지해 달라 총독에게 호소를 하였다. 영일동맹으로 인해 영국계 캐나다 사람이었던 스코필드를 간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계속 눈엣가시였던 일본, 결국 1920년 그는 캐나다로 강제출국 조치를 당하게 되었다.

스코필드는 캐나다에 돌아가서도 자신의 수입의 반을 한국을 위해 저축을 하고 독립운동가들에게 편지를 작성하면서 독립에 대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용기를 불어 넣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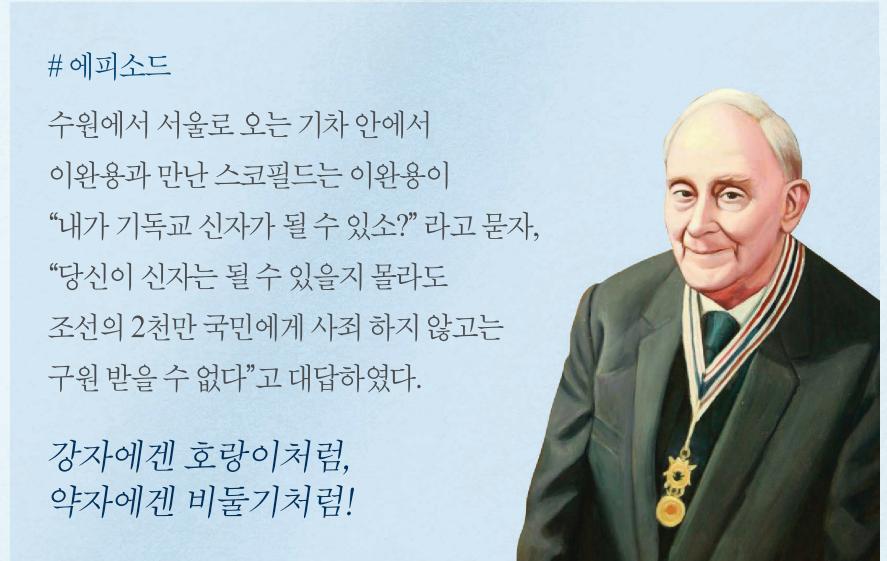
그 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난 후 계속해서 한국을 방문했던 스코필드는 보육원 후원과 젊은 지도자들의 양성에 온힘을 쏟고 위피린이라는 쥐약과 디큐머롤이라는 혈액응고제도 만들어냈다. 1950년 서울대학교 수의학교 교수로 임명, 남은 생애동안 한국에서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는 3.1운동의 정신을 교육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1970년 4월 12일 대한민국에서 생을 마감한 스코필드는 그동안의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 서울현충원에 외국인 최초로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하게 되었다. ━

### # 에피소드

수원에서 서울로 오는 기차 안에서  
이완용과 만난 스코필드는 이완용이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소?”라고 묻자,  
“당신이 신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조선의 2천만 국민에게 사죄 하지 않고는  
구원 받을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강자에겐 호랑이처럼,  
약자에겐 비둘기처럼!



# 이전에 얻은 성과를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법일  
벽룡사 주교



바위 위에 암자를 짓고 좌선을 즐긴 석두 스님에게  
제자인 약산스님이 어느 날 물었다.

“약산아. 너 거기서 무엇하느냐?”

“아무것도 안하는 데요”

“그렇다면 그냥 한가롭게 앉아 있는 게로구나”

“한가롭게 앉아 있다면 하는 일이 있는 거지요.”

-『선문염송』



미국에 유명 배우가 주지사에 당선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정치적 능력을 의심했다. 어느 카테일 파티에서 한 남자가 말을 걸어 왔다. “주지사님이 당선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혹시 ‘터미네이터’ 흥행 덕분은 아닐까요?”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담담하게 말했다.

“여러분은 제가 과거에 쌓은 명성으로 주지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 질문을 하죠?”

“당신은 산에 올라가 본적이 있나요?”

“당연하죠.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산에 올라가 봤을 겁니다.”

“산 정상에서 다른 산에 오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죠?”

“주지사님.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질문입니다. 산을 내려와 다른 산을 다시 올라야지요? 그것도 모릅니까?” 이 말에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

“당신 말대로라면 일단 오른 산을 내려와 다른 산을 다시 올라야 한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한 사람이 두 개의 산을 동시에 오를 수는 없으니까요?”

“당신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어떤 일에 성공을 거둔 후 또 다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얻은 모든 성과를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

# 겨울철 찌릿찌릿한 손저림, 원인과 대처방안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

## ② 손저림의 원인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손저림을 호소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 증상은 하나가 아니고 제각각 다르다. 예를 들면, “전기가 오는 듯하다”, “남의 살 같은 느낌이 든다”, “통증이 있다”, “손이 차다”와 같이 다양하게 표현된다. 이와 같이 손저림은 여러가지 의미를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원인도 하나로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 ③ 손저림이 있으면 어떤 검사와 치료가 가능할까?

손저림은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한다. 따라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증상에 대해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에 맞는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의사에게 손저림

의 범위와 발생시기, 악화/완화 요인, 음주 및 흡연 여부, 직업, 질병력, 현재 복용중인 약 등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다. 기본적인 혈액검사를 통하여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 유무를 확인하고, 병력에 따라서 감염성 질환이나 비타민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 신경전도검사가 말초신경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한 검사이며, 추가로 X-ray, MRI 등을 촬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검사를 모두 하여도 그 원인이 찾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인에게서 뚜렷한 감각의 저하없이 손저림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특정 원인과 관련 없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치명적인 질병과 무관하지만, 치료도 쉽지가 않다.

## ④ 손저림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평소에 바른 자세를 갖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좋다. 비만은 척추 질환 뿐만 아니라, 당뇨병, 뇌졸중과 같은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손저림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한다.

음주는 비타민 B1, B12와 같은 영양소의 흡수를 감소시켜 손저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과음, 폭음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음주를 할 때에는 균형있는 영양섭취를 항상 생활화 한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혈관계통이나 신경계통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평소 생활에서 척추, 손 등에 무리가 가지는 않는지, 직업적으로 중금속에 노출이 되지 않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 ━

## 자자

自恣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자자

恣 방자할

자자<sub>自恣</sub>란 범어 프라바라나<sub>pravāraṇa</sub>를 번역한 말로 ‘만족<sub>滿足</sub>’, ‘희열<sub>喜悅</sub>’ 또는 ‘수의사<sub>隨意事</sub>’라고도 해석한다. 이는 안거가 끝나는 날 대중이 한 곳에 모여, 승가<sub>僧伽</sub>에게 자기의 죄과<sub>罪過</sub>를 드러내거나 다른 이의 지적을 듣고 갈마<sub>羯磨</sub>와 참회<sub>懺悔</sub>를 행하여 스스로 청정<sub>清淨</sub>과 희열<sub>喜悅</sub>을 얻도록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자의 시작은 팔리율의 ‘자자건도<sub>自恣度</sub>’에 나타난다. 안거<sub>安居</sub> 기간 동안 비구들은 서로 도와가며 화합하고 싸우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한 비구들이 안거 생활 중에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기를 꺼리고 안이한 화합을 구하여 서로 무관심하게 외도나 지키는 병어리 계를 지키며 살았다고 한다.

안거 중에 상대의 결점을 지적하는 것에 의해 승단에 불화가 일어날 것을 꺼렸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안 봇다는 크게 꾸짖으며 안거가 끝난 후에 자자를 행하여, 3개월간의 안거 생활 중에 보고, 듣고, 의심한 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였다. 즉 서로

잘못을 지적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자자를 잘못 진행하면 비구들의 우려처럼 서로를 비방하거나 비난하여 승가의 화합을 깨게 된다. 그래서 자자를 행함에 있어 다섯 가지 법이 갖추어져야 한다. ‘때를 바로 알고, 진실에 꼭 들어맞아야 하고, 이익이 있어야 하며, 부드럽고, 인자한 마음’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자는 참으로 ‘성대하고도 감동에 넘치는 것’으로, 재가 시절 시 짓는데 뛰어난 솜씨를 보였던 반기사<sub>婆耆沙</sub>라는 비구는 어느 날 자자의 정경을 목격하고 다음과 같은 시구를 남긴다.

“보름이라 달 밝은데, 신·구·의 맑히려고  
오백 넘는 비구들은 여기에 모였으니 번뇌의 올가미를  
모두 다 벗어 던져 윤회의 반복 않는 성자들뿐이로다.  
세존의 아들이요, 법의 씨 그들이매  
당찮은 말 들어놓는 사람이란 없어라.  
갈애의 그 화살을 빼어 버린 우리가  
아으, 세존 우러러서 예하여 뵈옵노라.”▲

-『상응부경전』제8권, 『南傳 남전』

\* 갈마<sub>羯磨</sub>

수계<sub>受戒</sub>·참회<sub>懺悔</sub>·징벌<sub>懲罰</sub>·의결<sub>議決</sub> 등을 하는 의식이나 행위. 제시된 안건<sub>案件</sub>에 대한 가부<sub>可否</sub>를 묻는 행위.

# 광풍제월

光  
風  
霽  
月



光 빛 - 광

風 바람 - 풍

靄 비 갤 - 제

月 달 - 월

- ① 비가 갠 뒤의 맑게 부는 바람과 밝은 달
- ② 마음이 넓고 쾌활하여 사람의 높고 깊은 인격

- 옛날 중국의 황정견 黃庭堅이 주돈이 周敦頤의 인품을 평한 말
- 천성이 맑은 선비의 마음을 비유한 말
- 마음이 넓어 자질구레한 일에 거리끼지 않고 쾌활하며 쇄락 酒落(시원함)한 인품을 비유한 말

마음이 넓고 쾌활하여 아무 거리낌이 없는 인품의 사람은 주돈이 周敦頤, 1017~1073를 지칭했다.

자가 무숙 茂叔, 아호가 염계 儉溪이고 주자 周子라고 도 불린 주돈이는 북송 北宋 때의 학자로 성리학의 이론적 기초를 닦았다고 평가된다. 주돈이의 인품을 평한 사람은 스승 소식 蘇軾과 함께 송 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꼽히는 황정견 黃庭堅,

1045~1105이다. ‘송사 宋史’ 주돈 이전에 실린 내용은 이렇다. 존경하는 학자의 인품을 추앙하며 주돈이를 ‘그의 인품이 매우 고상하고 마음결이 시원하고 깨끗함이 마치 맑은 날의 바람과 비 갠 날의 달과 같도다’庭堅稱 基人品甚高 胸懷灑落 如光風霽月:정견칭라고 표현했다.

기인품심고 흥회쇄락 여광풍제월’라고 표현했다.

주돈이의 학문은 정호 程顥, 정이 程頤 형제를 거쳐 100여 년 뒤의 주자 朱子로 불린 주희 朱熹, 1130~1200에 의해 집대성됐다. 그에게는 애련설 愛蓮說이란 명문도 있다. 연꽃을 꽃 중의 군자로 부르면서 모두 화려한 모란만 좋아하고 도연명 陶淵明이 아낀 은일군자의 품격을 갖춘 국화나 청렴한 선비기질의 연꽃을 싫어하는 세태를 풍자했다. 여기서도 그의 고아한 인품이 드러난다.

주돈이는 고인 古人:옛사람의 풍모 風貌가 있으며 정사 故事를 배울음에는 도리를 다 밝힌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북송의 유학자로, 송학 宋學의 개조 開祖로 불리며, 태극 太極을 우주의 본체라 하고《태극도설 太極圖說》과《통서 通書》를 저술하여, 종래의 인생관에 우주관을 통합하고 거기에 일관된 원리를 수립하였으며, 성리학 性理學으로 발달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광풍제월이라는 말은 훌륭한 인품을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잘 다스려진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또 ‘제월광풍 霽月光風’, 줄여서 ‘광제 光霽’라고도 한다. ━

## [원문 原文]

黃庭堅稱其

황정견칭기

人品甚高 胸懷灑落 如光風霽

인품심고 흥회쇄락 여광풍제월

廉於取名而銳於求志

렴어취명이예어구지

薄於徼福而厚於得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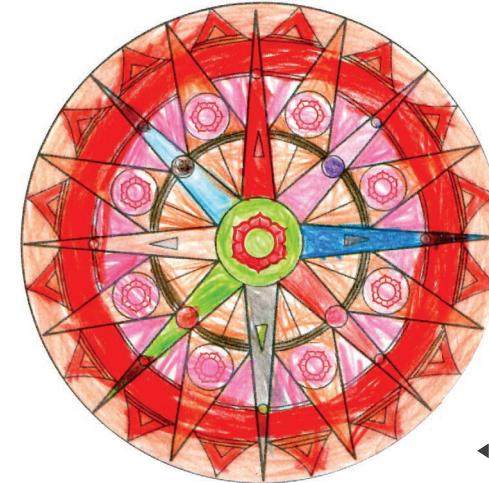
박어요복이후어득민

##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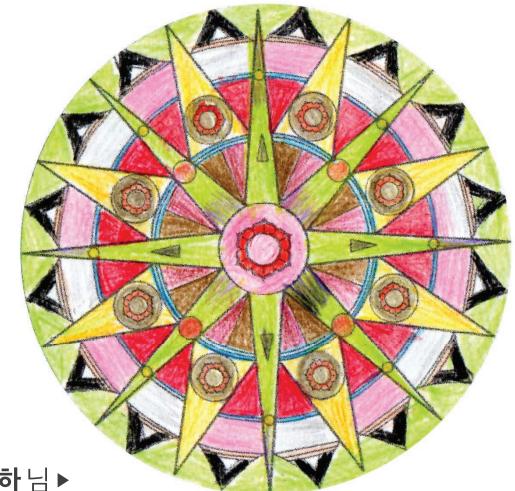
지난 호 독자 솜씨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산 김은지 님



서울 조은하 님 ▶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 됩니다.

#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편집 후기

초겨울 편지

- 김용택

앞산에 고운 잎 다 졌답니다.

빈 산을 그리며 저 강에

흰눈 내리겠지요.

눈 내리기 전에  
한 번 보고 싶습니다.

- 『사랑이 다예요』 중에서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새해에 세웠던 계획과 꿈들을 되짚어 보게 된다.

생각해 보면,

많은 일들이 생겼다.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달력을 꺼내면서

또 다시 새로운 희망과 꿈을 꾸게 된다.

한 장 남은 달력과 새 달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12월...

보고 싶은 이들에게

짧은 편지라도 보내야겠다.



##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sunmac72@naver.com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종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     |     |     |     |
|-----|-----|-----|-----|-----|
| 권도연 | 김덕원 | 김도연 | 김봉래 | 김송자 |
| 김양숙 | 남 익 | 류승조 | 박말숙 | 배도련 |
| 서금엽 | 손경옥 | 손재순 | 송유나 | 수증원 |
| 유정식 | 이영재 | 이인성 | 이혜성 | 자선화 |
| 정재봉 | 정정심 | 지 정 | 총지화 | 최순기 |



발행일 총기 46(2017)년 12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 책임 이선희

디자인 (주)디자인자

인쇄 동림기획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드다르마 편집부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2월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왜 흘러가 버린 과거를 후회하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가?  
목숨이 호흡 한 순간에  
달려 있는 줄도 모르고  
전전긍긍하는 그대 모습이  
불쌍하지도 않은가?

- 환당 대종사 -